

목표언어 중심의 등가적 번역전략에 대한 비판적 연구*

조의연
(동국대_서울)

1. 들어가기

단어, 구, 또는 절 단위의 번역 문제를 다루는 국부적(local) 번역전략에 대한 최근의 연구들(김혜영(2009), 김도훈(2010), 곽은주 진실로(2011), 김정우(2011, 2013) 등)은 목표 언어 체계 및 비번역문(nontranslated texts) 규범에 번역문을 일치시키려는 번역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김혜영(2009: 159)은 “도착어의 담화 관습에 알맞은 어휘를 선택하라”를 어휘층위에 필요한 전략으로 제시하며 이를 “번역문의 특징 가운데 출발어의 언어적 특성에 따른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범화 전략”의 일환으로 설명하고 있다. 한편, 조의연(2012)은 곽은주 진실로의 영어 복수명사에 대한 한국어 목표 텍스트 번역 전략의 문제점을 논의하면서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영한 번역자들에게 목표 언어 체계에 맞춘

* 이 논문은 2012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_2012_S1A5A2A01020037).

국부적 번역 전략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필요하다면 “그것은 번역 실행과정에서 나타나거나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어야”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조의연의 주장과 달리 김정우(2013: 65)는 전문 번역자 수준에 이르지 못한 번역자들에게 “참고할 만한 복수의 (영한)번역규칙으로서의 (목표어 중심의) 번역 전략은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주장의 배경에는 그가 번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번역문 현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데서 기인한다. 즉, 그는 한국어에서 복수 표지 ‘-들’이 필수 성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어의 영향으로 인하여 한국어에서 복수 표지 ‘-들’이 훨씬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이상섭(1998: 249)의 말을 인용하며, 원문 간섭으로 인한 번역투 같은 문제를 피하기 위해 목표어 중심의 번역규칙/번역전략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펴고 있다. 김혜영 (2009: 134)은 이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출발어의 간섭에 기인한 획일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원문에 나타난 출발어 고유의 텍스트 특성들을 도착어의 언어 및 문화의 형태와 규범에 따르도록 하는 규범화 전략이 필요하다.

김혜영과 김정우의 이러한 입장은 출발어 간섭으로 인한 이른바 ‘번역투’(translationese) 현상 또는 번역문의 언어적 특성을 비번역의 규범에서 이탈한 대상으로 보기 때문이다.

김혜영(2009: 135)은 번역문의 특성으로 불리는 “번역투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지는 않는다”라고 말한다. 그 이유는 “외국어 문체의 유입은 국어의 문체를 더욱 세련되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현대 한국어의 역사성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김정우(2014: 129) 또한 “(번역문의 특징)에 대한 가치 판단은 연구자에 따라 적잖은 편차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번역전략 또는 번역규칙을 제기한 김혜영(2009), 김정우(2013)의 연구는 모두 원천 언어의 간섭으로 발생한 번역문의 특성을 ‘순화 대상’ 또는 국어 규범의 차원에서 수정 대상으로 보고 번역문 특성을 수정하는 번역 전략/규칙을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이러한 입장에서 논의된 번역 전략/규칙은 비번역문의 규범을 번역문의 특성보다 이데올로기적으로 상위의 것으로 본 입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본다. 이에 우리는 ‘번역문의 특성은

과연 존재론적으로 비번역문의 그것보다 열등한 것인가?’라는 질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이 물음에 대해 번역문이 존재론적으로 열등해야 할 이유가 없음을 논의하고자 한다.

Chesterman(1997: 1.4절)과 조의연(2012)에서 논의되었듯이 번역 전략/규칙은 실증적 검증의 대상이므로 본 연구는 목표 언어 중심의 등가적 번역전략의 필요성과 이에 따라 제시되는 번역규칙을 김혜영(2009)과 김정우(2013)를 중심으로 그 문제점을 논의할 것이다.¹⁾ 비번역문의 규범에 기반한 번역 규칙으로서의 번역 전략을 이 논문에서는 ‘비번역문 우위 중심의 번역전략’이라고 부를 것이다. 비번역문 우위 중심의 번역전략은 목표어 규범 중심의 처방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번역전략은 ‘제 3의 부호’라고 하는 번역문의 독립된 성격과 배치되는 것임을 주장할 것이다.

2. 비번역문 우위 중심의 번역 전략, 그 원인과 문제점

우리는 2절에서 김정우(2011)에서 제시된 비번역문 규범 중심의 번역 전략과 그 문제점에 대해 의존 명사 ‘때문’의 번역 전략과 관계하여 논의할 것이다. 그는 김혜영(2009)의 한국어 비번역문과 번역문 병렬말뭉치 연구에 기초하여 번역문에서 의존명사 ‘때문’이 과잉 사용되고 있음을 관찰하고 이를 명시화 등의 이유로 밝히고 있다.²⁾ 김정우는 비번역문과 다른 번역문의 어휘적 또는 형태적 특징을 ‘중간언어’로 보고 있다. 김정우(2011: 113)는 이러한 번역문의 특징을 “중간언어적 특성”이라고 부른다. 비번역문 언어 규범의 관점에서 보면, 비번역문 현상이 규범적이고 번역문 현상이 보이는 특징은 이 규범에 미치지

1) 비번역문에 대한 한국어 번역문의 특징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는 김혜영(2009)이다. 그리고 이의 맥락에서 김정우 (20011, 2013)는 번역전략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이 논문에서는 김혜영과 김정우의 연구를 중심으로 다룬다.

2) 김혜영은 이를 어휘의 단순화(simplification)에서 기인한 것으로 설명하며 이는 번역의 보편적 현상 가운데 하나이다. 김정우(2011)에 따르면, 자신의 번역문 연구 병렬말뭉치에서 ‘때문’이 출현한 559회 가운데 44.5%(249회)에 해당되는 가장 많은 경우가 원문에는 이에 상응하는 언어 지표가 없이 앞뒤 사건 관계의 유추에서 비롯된 명시화의 경우이다.

못하거나 이탈된 것이다. 비번역문의 규범을 정전(canon)의 위치에 놓음으로써 번역문의 언어적 위치는 주변적인 것으로 강등된다. 따라서 번역문의 현상을 번역 과정에서 중간적 위치에 있다고 보게 됨으로써 번역어 표현은 번역에서 여전히 수정 또는 변화되어야 하는 대상이 된다. 이러한 비번역어 또는 목표 언어 상위론자들에게는 비번역문과 차이를 보이는 번역 언어를 ‘일상 언어’의 비번역문 규범의 지위에 이르게 하는 번역 수정규칙이 필요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김정우(2011: 114)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TT가 일상언어와 최대한 가까워지는 것을 번역 표현의 목표로 삼는다면, 이런 경우에 번역 이후의 수정 과정, 즉 중간언어를 일상언어에 접근하도록 고쳐 쓰는 한국어 번역문의 수정변환규칙을 제안하고자 한다.³⁾

예를 들어, 김혜영(2009)의 번역문 특징 연구에 따르면 의존명사 ‘때문’은 사용빈도가 비번역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0만어절의 말뭉치에서 비번역문에서 ‘때문’의 출현 횟수는 2,711회이며 번역문에서는 3,478회로 번역문이 767회 더 높는데 그 이유는 이유를 나타내는 ‘기 때문’의 전체 출현 횟수가 비번역문에서는 1,860회인데 번역문에서 2,665회로 805회나 높아서 번역문에서 ‘기 때문’의 사용 횟수가 높은 데서 찾고 있다. 이의 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김정우(2011)는 원천 텍스트와 목표 텍스트의 병렬말뭉치에 기반하여 이의 원인을 분석하였다. 김정우에 따르면, 번역문에서는 원천 텍스트에 ‘이유’를 나타내는 언어 표지가 없음에도 이야기의 전후 맥락으로 부터 유추된 두 상황 또는 사건의 원인-결과와 관계를 ‘때문’으로 번역한 용례가 가장 많이 존재한다. 각주 (2)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인과 관계를 나타내는 언어 표지 없이 전후 문맥의 의미관계를 추론하여 ‘때문’으로 번역한 용례가 전체의 44.5%에 해당된다. 다음은 전후 문맥에 따라 유추되어 ‘때문’이 사용된 예이다.

3) 김혜영(2009)의 번역 전략은 번역 글쓰기의 입장에서 제시되고 있다. 즉, 김혜영은 번역 글쓰기를 ‘계획하기’ ‘표현하기’ 그리고 ‘수정하기’의 세 단계에서로 나눈다. 이 가운데 ‘표현하기’ 단계에서 “예상 독자가 속한 담화 공동체의 담화 관습을 따르라”라는 상위전략은 목표 언어에 충실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예시 1)⁴⁾

ST: Lindsay is petite. Her jacket sleeves are always a bit too long for her, as if she ~

TT: 린지는 체구가 작기 때문에 언니에게 물려받은 옷이 아직 잘 맞지 않는 것처럼 언제나 재킷 소매가 좀 길다. (김정우 2011: 88)

위의 원천 텍스트에서 첫 번째 상황 ‘린지가 체구가 작다’는 것은 두 번째 상황, 즉 ‘그녀의 재킷 소매가 항상 좀 긴’ 이유로 해석되어, 원천 텍스트에 존재하지 않는 의존 명사 ‘때문’이 목표 텍스트에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명시화 전략의 일환으로 ‘때문’이 번역문에서 비번역문보다 발생 횟수가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비번역문 규범 상위론자들에게는 이러한 번역문 현상은 비번역문의 규범에 맞추어야 하는 대상이다. 즉, 김정우는 원인-결과 의미의 전후 맥락적으로 해석, 유추 가능한 경우, 의존명사 ‘때문’을 삭제하여 비번역문 규범에 이르는 번역 텍스트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러한 변화를 가져오는 번역전략을 ‘수정변환규칙’이라는 이름으로 제안하고 있다. 이와 같은 비번역어 상위 번역전략의 관점에서는 이와 같이 명시화가 적용된 번역문에서 이러한 명시화 기법은 선택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수정변환규칙이 제시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전후 문장만으로도 직접적 대조의 의미기능이 명확하게 드러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의존명사 ‘때문’을 삭제해서 적절한 글의 긴장을 유지하도록 한다. (김정우 2011: 114)⁵⁾

이를 번역과정의 측면에서 재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번역자가 중간언어 단계의 번역문에 의존명사 ‘때문’이 사용된 경우에 번역자는 전후 문장의 의미관계를 보고 대조의 기능이 번역 표현 ‘때문’이 없이도 드러나면 ‘때문’을 생략하

4) 본 논문에서 번역 자료는 (예시)의 일련번호를 주었으며 기타 자료는 (예시) 구분 없이 일련번호를 부여하였다.

5) 한편, 김혜영(2009: 172)은 번역문에서 의존명사 ‘때문’의 출현 횟수가 높은 이유는 인과 관계를 나타내는 ‘-기 때문에’가 비번역문에서 보다 훨씬 많이 쓰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인과 접속에서 ‘-아서/어서, -니(까), -(으)므로, -느라(고), -기에, -길래’ 등의 연결어미를 다채롭게 활용하(라)”는 어휘 사용 번역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여 일상언어, 즉 비번역문의 규범과 가까운 번역 결과를 도출하여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김정우에 따르면, 아래의 예에서 전후 문맥으로 ‘이유’의 의미관계가 드러나기 때문에 ‘때문’을 삭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예시 2)

번역문1: 검시 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시체는 인접 카운티에 있는 클랙스턴 지역 의료센터로 보내진다. 여기에는 훈련된 병리학자들이 있어서 인접 지역에 모인 시체를 재부검하기 때문이다.

번역문2: 검시 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시체는 인접 카운티에 있는 클랙스턴 지역 의료센터로 보내진다. 여기에는 훈련된 병리학자들이 있어서 인접 지역에서 모인 시체를 재부검한다.

위에서 번역문(1)은 중간언어로서의 번역문이고 번역문(2)는 ‘때문’이 삭제되는 수정변환규칙이 적용되어 생산되는 일상언어로서의 번역문이다.

그러나 번역 전략으로써 제시되는 이러한 수정변환규칙의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나타난다. 하나는 실증적인 문제점이며 다른 하나는 이론적인 문제점이다. 실증적인 측면에서 보면, 위의 번역문(1)은 단어 및 형태 단위에서 그리고 화용적인 단위에서 목표 언어의 체계를 벗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아래의 예가 보여주듯이, 위의 번역문(1)과 같은 경우가 비번역문 용례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예시 3)

비번역문: 동독 주민들을 받아들일 때 서독에서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경제적인 대비를 했기 때문이었다. (조선일보 2012, 세종말뭉치에서 추출된 용례)

의존명사 ‘때문’이 발생하는 목표 텍스트의 표현이 목표 언어의 체계에서 벗어난 것도 아니며 오역도 아니라는 것이다. 위에서 제시된 번역문(1) “검시 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시체는 인접 카운티에 있는 클랙스턴 지역 의료센터로 보내진다. 여기에는 훈련된 병리학자들이 있어서 인접 지역에서 모인 시체를 재부검하기 때문이다.”에서 의존명사 ‘때문’의 사용은 형태 및 화용의

용법이 목표언어인 한국어 체계 및 규범에 부합되고 있다. 따라서 번역문(1)이 일상언어에 근접하지 못하다고 주장할 근거는 없는 것이다. 결국, 번역문에서 ‘때문’이 생략되어도 문제가 없는 경우에도 이를 삭제하여야 하는 번역 전략은 잉여적이거나 불필요하다. 번역과정에서 명시화로 인하여 또는 동일한 의미역에 속하는 명사 ‘탓’보다 의미적으로 상위어인 ‘때문’의 어휘 단순화로 인하여 의존명사 ‘때문’의 발생빈도가 번역문에서 비번역문보다 높다고 하여 이를 수정하여야 한다는 것은 비번역어, 즉 일상 언어가 번역 언어보다 우위에 있다는 비번역문 규범 중심 또는 비번역문 우위 이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3. 목표언어 기반 번역전략의 문제점: 영어복수 표현의 경우

이 절에서 우리는 목표 언어 기반 번역 전략을 실제 번역 현상을 중심으로 검증할 것이다. 김정우(2013)에서 영어 복수 표현의 한국어 번역 전략과 관련된 논의를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중심으로 논의할 것이다. 영어와 달리, 한국어의 복수의미는 형태적으로 복수 표시 ‘-들’이 접미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가능하다. 전자의 경우 유표형, 후자의 경우 무표형 복수라고 불린다. 아래의 경우가 이를 보여준다.

- (1) 검은 교복을 입은 학생들은 일제히 허리를 뻗뻗이 세우고 절도 있게 경례를 한다.
- (2) 대학들은 살아남기 위하여 학생을 유치하려고 치열한 경쟁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조의연 2012: 271에서 인용)

따라서 영어의 복수형은 한국어에서 위와 같이 유표형 ‘들’로 또는 무표형으로 번역된다. 이에 따라 김정우(2013)는 영어 복수 표현의 영한 번역을 위한 번역규칙을 유표형과 무표형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먼저 그의 최종적인 번역규칙을 논의하기 전에 그의 연구에서 제시된 영어 복수의 한국어 번역전략이 목표언어 중심의 등가적 전략임을 논의하고자 한다. 그의 최종 영한 복수 번역 전략은 아래의 번역 규칙에서 출발한다.

- (3) 원문의 복수 명사가 사건복수의 성격을 띠면 복수표지 ‘-들’을 붙인다.
(김정우 (2013)의 (20))

김정우의 이와 같은 번역 규칙은 한국어 유표형 복수 표지 ‘-들’에 관한 임흥빈(2000)의 연구에 기초하고 있다. 임흥빈은 복수표지 ‘-들’은 대상에 대한 복수성 뿐만 아니라, 복수 표지 ‘-들’은 단순히 복수 표지로서가 아니라 이 개체들이 우리의 인지대상에서 사건성으로 인식된다는 것이다.⁶⁾

- (4) ‘들’의 사건 복수 표시 기능
‘들’ 접미 대상은 복수적인 사건과 관련되는 의미를 가진다. (임흥빈의 (40))

임흥빈이 주장하듯이, 한국어 복수표지의 기능이 ‘복수적인 사건’과 관련되어 있다고 가정하자. 위의 기능이 목표 언어 복수표지 ‘-들’의 화용의미적 기능이며 영어 복수명사는 목표 언어의 이 언어적 기능에 맞추어 번역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영어 복수명사가 중간언어로서 번역어가 아닌 ‘일상언어’인 언어 체계에 부합되게 번역되기 위하여 원천 텍스트에서 영어 복수명사가 복수적인 사건으로 해석될 때 그것은 한국어 목표 텍스트에서 복수표지 ‘-들’로 번역되어야 한다. 김정우는 (3)의 번역규칙은 언어학적이어서 이것이 번역 전략으로

6) 예를 들어 복수의 책을 읽은 경우에 아래의 두 가지 표현이 가능하다.

- (i) 나는 책들을 읽었다.
(ii) 나는 책을 읽었다. (임흥빈의 (39))

임흥빈(2000: 27)에 따르면, 무표지 명사 ‘책’으로서도 복수 해석이 가능하지만 이를 복수 표지 ‘책들’로서 표현한 것은 화자가 책을 읽은 사건은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여러 번 되풀이된 사건에 포함된 대상”을 나타낸 것이다. 임흥빈 (2000: 28)은 이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 (iii) 개체성과 사건성
‘들’에 의한 단순 개체 복수 개념도 어떤 존재에 대한 인지 행위를 전제로 한다. 개별적인 인지는 개체성 성립의 출발점인 것이나, 문장의 의미론이 개재된다는 점에서 사건 관련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임흥빈의 (42))

번역 현장에서 활용, 적용되게 하기 위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수정하여야 한다고 한다. 여러 과정을 거쳐서 영한 번역에서 한국어 유표형 복수표지 ‘-들’로 번역되어야 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은 번역 규칙으로 제시되고 있다.⁷⁾

- (5) a. 원문의 복수명사가 논리적으로 복수 범주를 요구하면 복수표지 ‘-들’을 붙인다. 이때 원문의 복수명사는 대체로 개체화 작용의 대상이 된다.
- b. 원문의 복수명사에서 이질성이 발견되면 복수표지 ‘-들’을 붙인다. 이 때 원문의 복수명사는 대체로 동작성을 띠는 유정명사이다. (김정우의 (23a, b))

그런데 이러한 번역 규칙은 두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위의 번역 규칙이 해당 영한 번역에 제대로 적용되느냐 하는 실증적인 면이다. 다른 하나는 그가 언급한 바와 같이 위의 번역 규칙이 실무번역 현장에서 번역자에게 활용될 만큼 용이한 개념 또는 용어로 기술되어 있느냐 하는 활용성의 측면이다.

먼저 위 번역 규칙의 실증적으로 타당한지 검토하여 보자. (5a)는 아래의 예를 설명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이다.

- (6) a. They walked between the houses.
- b. 그 사람들은 가옥들 사이(*가옥 사이)로 걸어갔다. (김정우의 (11))

김정우 (2013: 70)에 따르면, ‘가옥 사이’는 어휘 의미적으로 “‘가옥’의 사이를 뚫고 지나가는 비논리적인 상황”으로 의미적으로 비정형(semantic anomaly)을 발생시키므로 위의 영어복수 표현을 무표형 ‘가옥 사이’로 번역하면 이는 비

7) ‘복수적인 사건’은 대상체에 대한 우리 인지 작용에서 대상의 개체화 또는 개별화의 결과이기 때문에 김정우는 (3)의 번역전략을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위의 최종 번역 규칙을 제시하였다.

- (i) 원문의 복수 명사에서 개체화의 특성이 발견되면 복수표지 ‘-들’을 붙인다.
- (ii) 원문의 복수 명사에서 이질성이 발견되면 복수표지 ‘-들’을 붙인다. (김정우의 (21), (22))

적격적인 문장이 된다. 즉, 김정우는 위의 번역문에서 ‘between the houses’는 (6b)와 같이 복수표지 ‘-들’이 쓰인 ‘가옥들 사이’로 번역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문제는 위와 같은 영어 복수표현은 실제 번역에서 ‘가옥들 사이’가 아닌 ‘가옥 사이’와 같은 ‘-들’이 접미되지 않은 무표형 복수표현으로 번역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김정우에서 인용된 예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아래의 예문에서 ‘between the tables’의 번역이 무표형 ‘탁자 사이’로 번역되고 있다.

(예시 4)

ST: First Monitor Petrov, newly appointed, and Second Monitor in jodhpurs and boots walked among the tables to be sure everyone was singing.

TT: 얼마 전 새로 임명된 일등 감독위원 페트로프와 승마바지에 부츠를 신은 이등 감독 위원이 탁자 사이를 돌아다니며 노래를 부르지 않는 아이가 있는지 감시했다. (김정우 (31b))

ST의 맥락에서 번역자는 두 명의 감독위원이 탁자와 탁자 하나 하나 그 사이를 오가는 복수적 사건으로 인지하기 때문에 영어 복수명사 ‘tables’는 개체화의 대상이다. 그리고 김정우에게 ‘between the houses’의 경우와 같이 ‘between the tables’는 논리적으로 복수 범주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위에서 ‘between the tables’는 ‘탁자 사이’로 번역이 되며 이 표현은 의미적 비적격으로 해석되지 않고 ‘탁자와 탁자 사이’로 해석되고 있다. 즉, 복수적으로 해석되고 있다. 즉, 김정우의 번역 규칙 (5a)가 예측하는 바와 정반대이다. 이런 경우, 복수 표지 ‘-들’의 번역 규칙 (5a)는 타당하지 않거나 김정우의 관점에서 볼 때 번역 ‘탁자 사이’는 한국어 목표 언어 체계에 부합되지 않는 ‘중간언어’이어야 한다.⁸⁾ 그러나 위의 ‘탁자 사이’는 ‘탁자와 탁자 사이로’ 해석되는 적절한 한국어 표현이다.⁹⁾ 몇몇의 번역자에게 위의 문장을 번역 의뢰한 결과 모두

8) 이러한 예는 번역투로 분류될 수도 없다. 번역투는 원천 언어의 간섭으로 인한 것으로 보는데 원천 언어의 간섭을 받았다면 이는 복수표지 ‘-들’이 쓰인 ‘탁자들 사이’로 번역되었어야 한다.

9) 김정우(2013: 83)는 ‘탁자 사이’는 “무표형 복수의 용법으로 보기에 목표언어의 규

‘탁자 사이’로 번역을 하였다.¹⁰⁾ 이러한 것들은 유표형 ‘-들’의 번역 규칙 (5a)가 번역 실무 현장에서 규칙 또는 전략으로서 타당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김정우 영어 복수명사 한국어 번역규칙 (5a)와 (5b)의 문제점은 번역자들이 현장에서 이 번역 규칙을 실제 번역 과정에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실 각 주 (5)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김정우 (2013: 73)에 따르면, 번역 규칙 (5a)와 (5b)는 번역자가 언어학적 개념의 이해 없이 현장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건복수’의 개념을 ‘개별화’와 ‘이질성’의 개념을 도입하여 구체화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 번역 현장에서 번역자들에게 위의 두 번역 규칙에 대한 이해를 확인한 결과 김정우에서 의도된 바와 다르게 번역 규칙 (5a)와 (5b)는 해석되었다.

아래의 원문 영어 복수명사 ‘swallows’의 번역과 관련하여, 김정우는 ‘제비들’의 복수표지 ‘-들’을 번역규칙 (5b)의 결과로 해석하고 있다.

(예시 5)

ST: Swallows started from the towers at the shot.

TT: 총소리와 함께 탑 위에 앉아 있던 제비들이 날아올랐다. (김정우의 (26))

총소리에 놀란 제비들 한 마리 한 마리의 “날아오르는 높이와 모양, 날갯짓 등은 천차만별로 다르며, 복수의 인지행위를 수반하는 전형적인 경우로” 제비들 한 마리 한 마리의 동작이 이질성을 갖고 있는 경우로 본다(김정우 2013: 81). 그러나 실제 번역 현장에서 번역자들은 위의 경우 영어 복수명사 ‘swallows’는 논리적으로 복수 범주를 요구하는 경우로 해석한다. 즉 위의 (예시 5)의 번역 결과 ‘제비들’은 번역 규칙 (5a)에 부합하는 것으로 본다. 복수 대상 ‘swallows’와 단수 대상 ‘a swallow’는 논리적으로 다른 범주의 것으로 위의 맥락에서 복수 대상인 ‘swallows’가 무표형 ‘제비’로 번역되면 이는 단수로 해석되어 원문과 다른 논리적 오류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번역자들은 원문의 ‘swallows’는 총소리에 한 마리 한 마리 날아올라서 개체화되고 있고

범상 매우 부자연스럽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위의 문맥에서 ‘탁자 사이’는 ‘탁자와 탁자 사이로’ 의미조정(semantic modulation)을 일으킨다.

10) 동국대학교 번역학 연구소에서 번역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번역자 네 명에게 번역을 의뢰한 결과 4명 모두 무표형 ‘탁자 사이’로 번역하였다.

동시에 무표형 ‘제비’는 단수 ‘제비 한 마리’로 해석되어 원문의 복수가 논리적으로 수의 오류를 낳기 때문에 복수표지 ‘제비들’로 번역된 것으로 본다. 이는 김정우의 해석과 다르다. 김정우에서 복수 표지 ‘-들’이 접미된 ‘제비들’은 번역 규칙 (5b)의 결과로 보고 있다. 현장 번역자들을 위해 제시된 번역 규칙이 실제 실무 현장에서는 다르게 이해되고 있다. 이는 번역 규칙 (5a)와 (5b)의 번역 실무 현장에서 그 유용성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가 위의 영어 복수명사 한국어 번역전략 또는 번역규칙에서 보았듯이, 언어학의 이론적 틀에 기반한 번역 규칙은 번역 규칙을 제시한 번역학 연구자의 의도와 달리 번역 실무 현장에서 번역자들에게 활용되기에 쉽지 않다. 심지어 번역 규칙 (5a)는 실제 번역 결과와 다른 번역을 생산하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았다. 결국, 번역 텍스트에 나타난 번역 ‘탁자 사이’는 한국어 목표 언어 체계에서 이탈된 비직격성도 아니며 번역투도 아닌 한국어 언어 규범에 부합하는 것이었다. 조의연(2012)에서 주장하였듯이 번역 전략이나 규칙은 번역 실무 현장에서 번역의 문제로 제기되는 경험적 문제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4. 제 3의 부호로서 번역 언어의 독립된 지위

우리는 이 절에서 번역문에 비번역문과 동등한 언어적 지위를 부여할 것이다. 따라서 번역 언어를 ‘제 3의 부호’로 부를 것이다.¹¹⁾ 우리는 이 절에서 영

11) Frawley(1984)에 따르면, 번역은 기본적으로 원천 언어와 목표 언어의 접촉으로 발생하는 ‘제 3의 부호’이다. 번역 텍스트는 원천 언어와 목표 언어의 접촉 공간에서 발생한 것으로 비록 목표 언어 체계를 따르지만 목표 언어 규범과는 다른 특징을 가진 것으로 독자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the translation itself is essentially a third code which arises out of the bilateral consideration of the matrix and target codes: it is in a sense, a sub-code of each of the codes involved (Frawley 1984: 168).

‘제 3의 부호’는 일반적으로 ‘번역투’라고 불리기도 한다. 김혜영(2009: 135)에서도 나타났듯이 ‘번역투’라고 명명하여도 번역문의 특성을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보는 것

어-노르웨이어 번역에 나타난 존재 구문의 번역 특성을 논의한 Ebeling(1998)의 연구와 번역에 자기 지시성(self referentiality)을 부여한 Hermans(2008)의 연구를 바탕으로 번역문의 언어 현상을 비번역문의 그것과 동등하게 보아야 함을 주장할 것이다. 번역문의 언어 특징은 목표 언어의 체계를 벗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목표 언어와 동등한 체계로 보아야 한다. 단지 규범의 측면에서 비번역문과 다른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존재한다고 하여 번역문의 규범적 언어 특징을 열등한 것으로 보지 말아야 한다. 즉, 우리는 번역문의 특징에 독립된 지위를 부여하지는 주장을 할 것이다. 논의를 전개하기 전에 용어에 대한 몇 가지 언급이 필요하다. 먼저, 번역문은 비번역문의 상대어로서 존재하며 번역문은 번역 결과로 발생한 텍스트들의 집합체를 지칭한다. 한편, 목표 텍스트는 출발 텍스트의 맥락에서 비교 논의될 때 존재한다. 따라서 목표 텍스트의 특징을 논의할 때는 원천 텍스트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며 번역문의 특징을 논의할 때는 비번역문과의 관계에서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상적으로 목표 텍스트와 번역문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그 특징은 각각 원천 텍스트와 비번역문의 관계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드러나는 대상은 다르다. 번역학에서 ‘명시화’는 따라서 원천 텍스트와의 관계에서 드러난 현상으로 이는 목표 텍스트의 특징이지 번역문의 특징은 아니다. 한편, ‘단순화’ 또는 ‘규범화’는 비번역문과의 관계에서 드러난 특징으로 이는 목표 텍스트의 특징은 아니다. 이 논문에서 번역문은 번역된 텍스트의 집합체로 비번역문과의 관계에서 존재하는 장르이다.

번역문의 언어 특징이 ‘제 3의 부호’로서 보이는 번역문의 고유한 특성은 김혜영(2009), Ebeling(1998), Laviosa(2003)와 그리고 McLaughling(2009) 등의 연구에 의해서 입증되어 왔다.¹²⁾ 예를 들어, 노르웨이어도 영어와 동일하게 다음과 같은 존재동사 ‘be (vaer)’를 수반한 ‘there (det)’ 존재구문을 갖고 있다.¹³⁾

은 아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번역투(“deviation in translated texts induced by the source language”)는 원천 언어의 영향으로 인하여 발생된 번역 텍스트에 나타난 이탈 또는 비번역 텍스트 규범에서 이탈된 것으로 정의하기 때문에 부정적 의미가 함의되어 있다.

- 12) 번역문의 특성은 크게 단순화, 규범화 등으로 번역 보편소로 논의되어 왔다. 이에 관심이 있는 독자는 Laviosa(2003)와 김혜영(2009)을 참조할 것.
 13) 영어-노르웨이어 번역문의 특징에 대한 논의는 Ebeling(1998)를 참고하였다. 이 연구를 논의하는 것은 비번역문과의 대조연구로서 번역문 특성을 통사적 단위에서 한

- (7) a. There is a waiting room along the hall.
 (7) b. Det er et venterom borte i gangen (Ebeling 1998: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의 ‘be’ 존재 동사 ‘there’ 구문이 노르웨이어로 번역된 현상을 분석해 보면, 번역 텍스트에서 노르웨이어의 ‘vaer’ 등 존재 동사 ‘det’ 구문으로 번역된 발생 빈도는 노르웨이어의 비번역 텍스트를 닮지 않고 원천 텍스트 언어인 영어의 경우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노르웨이어 ‘det’ 구문에서 존재 동사의 의미를 가진 동사는 노르웨이어 vaer (be), finnes (being in existence)이며 ‘det’ 구문은 그 외에 bli (become), bo (live), komme (come) 등의 동사를 수반하며 쓰인다.

각각 50만 단어 영어와 노르웨이어 말뭉치에 기반한 Ebeling의 연구에서 영어 비번역문 말뭉치에서 ‘there’ 구문은 1,214회의 발생 횟수를 보였고 그리고 노르웨이어 비번역문 말뭉치에서 ‘det’ 구문은 총 2,076회 발생하였다. 비번역문에서는 노르웨이어가 영어의 경우보다 ‘det(there)’ 구문이 발생빈도가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영어 비번역문, 즉 영어 원문에서 ‘be’ 동사를 수반한 ‘there’ 존재 구문은 전체의 98%를 차지한 1,193회 발생하였다. 반면에 노르웨이어 비번역문에서 ‘vaer’ 즉 ‘be’ 동사를 수반한 ‘det’ 구문은 전체의 50%를 그리고 존재 의미를 가진 동사 ‘finnes’를 다 포함하여도 ‘det’ 존재 구문은 전체의 57%를 차지한다. 그런데 영어 원천 텍스트에서 1,193회 발생한 ‘there’ 존재 구문이 노르웨이어 번역문에서는 66%에 달하는 786회 ‘det’ 존재 구문으로 번역되었다. 그리고 나머지 기타 ‘det’ 구문으로 번역된 구문은 전체의 8%에 달하는 97회 발생하였다. 결국, 노르웨이어 번역문에서 ‘det’ 구문은 총 883회의 발생 횟수를 보였으며 이 가운데 존재의 의미를 포함한 ‘det’ 존재 동사 구문은 전체의 89%에 달하는 786회 발생한 것이다. 즉, 노르웨이어 비번역 텍스트에서는 ‘det’ 구문 가운데 ‘det’ 존재 구문은 약 57%에 달하였는데 노르웨이어 번역 텍스트에서는 ‘det’ 구문 가운데 ‘det’ 존재 구문은 89%에 달한다. 노르웨이어 번역문에 나타난 ‘det’ 존재 구문의 발생비율 89%는 노르웨이 비번역 텍스트의 발생 비율 57%에 상응한 것이 아니라, 영어 비번역문에 나타난 ‘there’ 구문에서 존재 구문의 발생 비율 98%를 쫓아가고 있다. 이를 표로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

연구로 널리 인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표 1 영어 비번역문과 노르웨이어 번역문 존재구문(there vs. det)의 분포현상

	영어 원문(비번역문)	노르웨이어 번역문
존재동사	1,193 (98%)	786 (89%)
기타동사	21 (2%)	97 (11%)
전체	1,214 (100%)	883 (100%)

이러한 연구결과에 대해 Ebeling(1998: 5)은 번역문에 나타난 노르웨이어의 특징은 노르웨이어의 언어 체계(system)에서 벗어난 오류가 아니라, 노르웨이어 비번역문의 규범(norm)에서는 벗어난 것이라고 말한다. 원천 언어의 영향으로 형성된 번역 텍스트 특징은 목표 언어의 비번역문과 다를 수밖에 없다. 목표 언어의 비번역문의 규범과 다르다고 하여 목표언어의 번역문 특징을 열등한 것으로 보아야 할 존재적 근거는 없는 것이다.

우리는 김혜영(2009)에서 관찰된 한국어 번역문의 특징이나 McLaughlin(2011)에서¹⁴⁾ 관찰된 불어 번역문의 특징은 목표 언어 체계에서 이탈된 것이 아니라, 목표 언어의 비번역문과는 다른 규범의 문제임을 보았다. 따라서 우리는 번역문의 특징에 대해 원천 언어와 목표 언어와는 다른 제 3의 부호로서 독립된 지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제 번역문이 비번역어문과 동등하게 독립된 지위를 가져야 하는 존재론적 근거를 번역의 자기 지시성(self-referentiality)의 관점에서 보고자 한다. Hermans(2008)는 번역의 특징을 자기 지시성으로 규정하고 있다. 번역은 원본과 등가적일 수 없기 때문에 번역은 지속적으로 또 다른 번역을 대상으로 이야기하는 자기 지시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어떤 번역 텍스트도 원본, 즉 원천 텍스트와 등가를 이룰 수 없는데 그 이유는 번역은 번역자의 해석과 번역자의 선택된 언어표현 등 번역자의 행위성(agency)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번역자의 주체성은 번역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번역은 또 다른 번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

14) McLaughlin(2011)에서도 번역 텍스트의 특징이 비번역 텍스트의 그것과 다르다는 것이 불어의 좌향전위구문의 발생빈도와 관련되어 논의되고 있다. 불어 번역문과 비번역문에 나타난 좌향전위구문의 출현빈도수를 논의하며 번역텍스트에서 나타난 좌향전위구문의 빈도수가 앞서 논의한 노르웨이의 경우와 같이 현저히 적을 뿐만 아니라, 영어 원천 텍스트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의하는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을 가진다. 따라서 원본에 대한 번역은 복수적(plural)일 수밖에 없으며 번역은 번역에 대한 자기 지시를 가지며 결국 고유의 자기 담론을 형성하게 된다.

우리가 번역의 자기 지시성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상호텍스트성이다. 번역 텍스트들 사이에서 존재하는 번역의 이 상호텍스트성을 원천 텍스트와 목표 텍스트 사이에 놓고자 한다. 번역은 원천과 등가일 수 없다는 전제 하에 번역에서 번역자는 중재(mediation)에서 다시쓰기(rewriting)에 이르기 까지 자신의 행위성의 결과이지만, 이 번역자의 행위는 원천 텍스트의 어휘, 구문, 의미, 문체 등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 즉, 번역 텍스트는 원천 텍스트와 깊은 상호텍스트의 관계에 있다. 번역자는 번역 행위의 시작부터 원천 텍스트의 내용뿐만 아니라 어휘, 구문, 의미 등과의 텍스트 망에 놓여 있기 때문에 목표 텍스트를 생산할 때부터 원천 텍스트의 언어적 요소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원천 텍스트는 목표 텍스트 내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번역에서 목표 텍스트는 원천 텍스트를 자기 지시하고 있는 것이다. 즉, ‘이 목표 텍스트는 좋은 번역이다’라는 진술은 ‘원천 텍스트 x에 대한 이 목표 텍스트는 좋은 번역이다’는 진술로 대체될 수 있는 동일한 진리조건을 갖는다. 번역 텍스트는 목표 텍스트의 언어, 즉 목표 언어로 쓰여 있지만 원천 텍스트에 실현된 원천 언어의 어휘, 통사, 의미요소가 번역 텍스트의 생산과정에 목표 언어에 의해서 지시되어지고 목표 텍스트 생산 과정에서 흡수, 변형되고 있다. 따라서 번역 텍스트의 언어는 목표 텍스트의 언어로 쓰여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원천 텍스트의 언어적 요소를 지시하고 있기 때문에 존재론적으로 비번역 텍스트의 특징과 다를 수밖에 없다. 서로 다른 두 존재인 비번역 텍스트의 언어(비번역어)적 특징과 번역 텍스트의 언어(번역어)적 특징에 서로 다른 지위를 부여해야만 서로의 차이가 드러난다. 번역문을 비번역문의 규범으로 환원시키려는 시도는 비번역문의 규범이 번역문의 규범보다 우위에 있다는 목표 언어 중심 권력 이데올로기의 결과로 보인다. 일상 언어가 번역문의 언어보다 우위에 있어야 하는 어떤 존재론적 근거도 없다.¹⁵⁾

15) 한 심사자가 지적하였듯이 이러한 입장은 “표준어나 표준문법의 의사소통적 가치를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그러나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표준어’와 ‘방언’은 언어정책에 의한 언어 이데올로기의 결과이다. 표준어의 준거로 사용되는 ‘서

Hermans가 번역의 자기 지시성을 언급하며 말했듯이, 번역서는 해당 번역 텍스트가 번역이라는 것을 자기 표지에 밝힘으로써 번역이라는 것을 자기 지시하고 있다. 한국어를 모국어로 쓰는 우리들이 독자로서 가령 영한 번역 텍스트를 읽을 때, 비록 독자로서 우리는 한국어 목표 언어로 쓰인 것을 읽지만, 우리는 우리의 비번역어 규범 체계와 동일한 랑그에서 비롯된 언어 행위(파롤)로 쓰인 것을 읽는 것이 아니다. 번역의 영역에서 존재하는 번역 텍스트의 언어는 비번역의 영역에서 존재하는 언어 체계로서 ‘일상언어’와 그 유형을 달리하고 있다. 우리가 영한 번역 텍스트를 읽을 때 한국어 비번역 텍스트를 읽는 것과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그 목표 언어인 한국어의 형식, 즉 한국어로 쓰여졌기 때문이다. 원천 텍스트의 언어로 자기 지시되어 있는 번역 텍스트를 읽지만 번역 텍스트의 목표 언어가 비번역 텍스트의 언어 체계를 빌려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어 텍스트를 읽는다고 생각을 한다. 이는 우리가 번역본 『호밀밭의 파수꾼』을 읽고 샐린저(Salinger)의 작품을 읽었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샐린저의 원작 *The Catcher in the Rye*와 번역 텍스트들 『호밀밭의 파수꾼』은 서로 다른 텍스트이다. 비록 번역 텍스트 『호밀밭의 파수꾼』이 원작 *The Catcher in the Rye*에서 출발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작과 번역 텍스트는 서로 다른 텍스트들이다. 원작을 우위에 두고 번역본을 원작에 환원시키려고 하는 시도는 존재론적 오류에서 시작하여 오류를 낳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비번역문의 규범을 우위에 두고 번역문을 이에 환원시키려고 하는 것도 오류를 낳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제 3의 부호’로 불리는 번역문의 특징은 원천 언어와 목표 언어가 함께 작동되어 발생하는 특정 사용역 언어 현상이다. 따라서 번역문의 언어 특징은 원천 언어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이미 실증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다. 말뭉치 사용역의 구분을 빌리어 말하자면, 번역문의 고유한 자기 지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말뭉치는 일반적으로 입말, 글말 말뭉치로 그 사용역이 크게 구분되듯이, 번역의 관점에서 볼 때, 한국어 말뭉치는 번역문, 비번역문 말뭉치로 그 사용역을 구분할 수 있다. 즉, 번역문 범주와 비번역문 범주는

을 지역어’가 존재론적으로 ‘전라 지역어’나 ‘경상 지역어’ 보다 우위에 있어야 하는 이유는 없다. 단지 국가의 언어정책에서 서울 지역어를 표준화하려는 시도의 결과일 뿐이다.

목표 언어의 독립된 하위 범주 언어 사용역 영역일 뿐이지, 번역문이 비번역문의 범주에 귀속되거나 환원되어야 하는 중간언어가 아니다. 따라서 번역 텍스트의 언어, 즉 번역문의 언어적 규범은 존재론적으로 비번역 텍스트의 언어적 규범과 서로 다른 개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독자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

5. 마치며

본 논문에서 논의한 김혜영, 김정우의 경우와 같이 비번역문의 언어 규범을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번역문의 특징을 비번역문의 규범에 맞게 쓰게 하려는 노력들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비번역문 중심의 번역문 글쓰기가 의문의 여지없이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 번역학의 영역에서는 그 어떤 입장도 전개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입장이 취해지든 이론적으로 그리고 경험적으로 그것은 타당한가라는 검증의 대상이어야 한다. 일단, 이 논문에서 우리는 번역문의 특징을 비번역문의 규범에 맞게 수정하려는 번역 규칙 또는 번역 전략은 타당하지 않음을 보이려고 하였다. 특히 그러한 번역 규칙이나 전략이 언어학적 논의에 기반을 둔 경우, 번역 실무 현장에서 활용되기에 적절치 않음을 보았다. 결론적으로, 단어, 구, 절 단위의 국부적 번역전략은 비번역문의 규범을 지향해야 할 언어적 동기가 있어야만 하며 특히 목표 언어의 체계에 부합하는 처방적 성격의 등가적 번역전략은 번역 전략으로서 타당하지 않음을 보았다.

우리는 번역문에 대한 특징을 제 3의 부호의 관점에서 재조명하였다. ‘제 3의 부호’로서의 번역문의 특징은 목표언어의 언어체계에 부합하는 것이며 단지 목표 언어의 비번역문의 규범과 다른 규범을 가진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목표 텍스트의 존재론적 성격을 상호텍스트성의 관점에서 보았다. 목표 텍스트는 원천 텍스트를 자기 지시하고 있기 때문에 원천 언어의 특징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번역문의 규범은 비번역문의 규범과 다를 수밖에 없다. 번역문을 비번역문으로 환원시키려는 노력은 비번역문의 규범을 우위에 놓는 언어 이데올로기의 산물일 뿐이다.

참고문헌

- 곽은주 · 진실로 (2011) 「텍스트 차원에서의 복수표현의 영한번역전략」, 『번역학연구』 12(1): 7-34.
- 김도훈 (2010) 「대시(dash)와 줄표의 비교 및 영한 번역 전략」, 『번역학연구』 11(3): 41-64.
- 김정우 (2011) 「한국어 번역문의 중간언어적 특성」, 『번역학연구』 12(1): 75-122.
- 김정우 (2013) 「영어 복수 표현의 한국어 번역에 관한 종합적 고찰」, 『번역학연구』 14(4): 61-90.
- 김정우 (2014) 「영어 번역 한국어의 문체와 어휘」, 조의연 엮음 『번역문체론』, 서울: 한국문화사, pp. 111-132.
- 김혜영 (2009) 『국어 번역 글쓰기의 연구』 고려대학교 국문과 박사학위 논문.
- 이상섭 (1998) 「외국 참고서에서 보는 한국어에 대한 시각」, 『새국어생활』 8(1): 247-256.
- 임홍빈 (2000) 「복수 표지 ‘들’과 사건성」, 『애산학보』 24: 3-30.
- 조숙희 · 조의연 (2011) 「한국어 무표형 명사의 단 · 복수 해석에 대한 화용적 분석」, 『언어연구』 28(22): 373-384.
- 조의연 (2012) 「사람명사 복수표현의 영한 번역전략에 대한 비판적 소고」, 『번역학연구』 13(1): 267-281.
- Chesterman, Andrew. (1997) *Memes of translation: The Spread of ideas in translation theory*. Philadelphia: John Benjamins.
- Ebeling, Jarle. (1998) Contrastive linguistics, translation, and parallel corpora. *Meta*, 43:4, <<http://www.erudit.org/revue/meta/1998/v43/n4/index.html>>
- Frawley, W. (1984) Prolegomenon to a theory of translation, in W. Frawley (ed.) *Translation, Literary, Linguistic & Philosophical Perspectives*, 159-175. London: Associated University Press.
- Hermans, Theo (2008) Translation, equivalence, and intertextuality. *Wasafiri* 40:18, 39-41.
- Laviosa, Sara. (2003) Corpora and translation studies. In *Corpus-based approaches to contrastive linguistics and translation studies*, ed. by S.

Granger, J. Lerot and S. Petch-Tyson. Amsterdam and New York: Rodopi, pp. 45-54.

Lörscher, Wolfgang (1991) *Translation performance, translation process, and translation strategies: a psycholinguistic investigation*. Tuebingen: Guten Narr.

McLaughlin, Mairi (2009) The Linguistics of translated texts: the language of translation as the 'Third Code.' Paper read at Princeton University.

McLaughlin, Mairi (2011) Tradurre/Tradire: Translation as a cause of linguistic change from Manuscripts to the Digital Age, Paper read at UC Berkeley The University Library New Faculty Lecture Series, Berkeley: The Doe Library.

[Abstract]

A Critical Study of Target Language-Centered Translation Strategies

Cho, Euiyon
(Dongguk University_Seoul)

This paper aims to show that target language-centered translation strategies are not empirically valid. It also gives a critical discussion about the nature of translated texts with regard to that of non-translated texts to insist that there be no empirical reason to devise translation strategies to change translated text properties such as explication and simplification in order to fit into the norms of non-translated texts. The latter discussion is based on the notion of intertextuality of translated texts proposed by Hermans (2008). First, I critically review Kim Jeong-Woo (2011, 2013)'s translation rules to show what target language-centered translation strategies are and what their problems are. To be specific, Kim's translation rules to change English plural nouns into Korean marked plural form '-tul' are shown to be empirically invalid and they are not understandable to translators since those rules are devised based on linguistic theory-imbued terminologies. In the latter half of the paper I propose to treat translated texts to be equal with the status of non-translated text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Third Code'. Translated texts are mirrored or influenced by their source texts to be different from non-translated texts and their properties must be different from those of non-translated texts. Therefore they can not be reduced to the properties of non-translated texts.

▶ Key Words: translation strategies/rules, translated texts, non-translated texts, norms, plurals, intertextuality, self referentiality, the third code

조의연

동국대학교 영어영문학부 교수

choey@dongguk.edu

관심분야: 번역이론, 화용론

논문투고일: 2015년 1월 12일

심사완료일: 2015년 2월 28일

게재확정일: 2015년 3월 9일